

학업소진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습시간의 매개효과

권은경*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Mediating Effect of Learning Time on the Effect of Academic Burnout on Self-esteem

Eun-Kyeong Kwon*

Professor, Dept. of Education, Kyungnam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학업소진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습시간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 소재의 중학생 1,045명을 대상으로 학업소진, 학습시간, 자존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응답을 통해 3가지로 분석하였다. 첫째, 학업소진, 학습시간, 자존감의 집단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업소진과 학습시간은 집단별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자존감은 성별, 학년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상관분석 결과 학업소진과 학습시간은 자존감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학습시간과 자존감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회귀분석 결과 학업소진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습시간은 모두 부분매개하였다. 이는 학업소진이 중학생의 자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학습시간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넷째, 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매개변인인 학습시간이 자존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여학생의 경우는 학습시간이 자존감에 유의미한 통계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여학생만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년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중학교 1,2학년은 학습시간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으나, 중학교 3학년의 경우 학습시간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설문을 통해 급격한 성장기인 중학생 시기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별에 따른 접근 뿐 아니라 학년별로도 학업소진이 학습시간과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한 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 중학생, 학습시간, 학업소진, 자존감, 매개효과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understand the mediating effect of learning time in the effect of academic burnout on self-esteem of middle school students. To this end, a survey of 1,045 middle school students in Gyeongsangnam-do was conducted on academic burnout, learning time, and self-esteem. It was analyzed in four ways through questionnaire response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collective characteristics of academic burnout, learning time, and self-esteem,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groups, and self-esteem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y gender and grade. Second,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academic burnout and learning time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self-esteem, and learning time and self-esteem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Third,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all learning times were partially mediated in the effect of academic burnout on self-esteem. This not only directly affects the self-esteem of middle school students, but also indirectly through learning time. Fourth, in the analysis by gender, it was confirmed that male students ha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self-esteem, but female students had a significant statistical effect on self-esteem, so only female students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by grade, the effect of learning time on self-esteem was significant in the 1st and 2nd graders of middle school, but the effect of learning time on self-esteem was not significant in the 3rd graders of middle school. Through the survey of this study, it was suggested that education and counseling should be conducted in the middle school period, which is a rapid growth period, considering that academic burnout has a different effect on learning time and self-esteem by grade as well as gender approach.

Key Words : Middle school students, Learning time, Academic burnout, Self-esteem, Mediating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Eun-Kyeong Kwon(cantatas@daum.net)

Received September 4, 2022

Accepted November 20, 2022

Revised September 29, 2022

Published November 28, 2022

1. 서론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 위주의 평가와 경쟁적 학습 환경으로 인해 학업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1]. 과도한 학습시간으로 인한 학업스트레스는 학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긍정적인 정서발달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한다[2]. 통계적으로 가장 오래 학습을 하는 한국 학생들이 학업성취는 떨어지고, 부정적인 정서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학교 시기는 학생 스스로 학습방법을 익힐 수 있는 결정적 시기다. 학습방법을 스스로 익힐 수 없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학원이다. 학원에 등록하는 순간 아이는 공부하는데 어떤 계획도 세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중요한 학습방법은 배우지 못하고, 교과내용만 반복해서 듣고, 스스로 배운 것을 익히는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서 열심히 한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학습시간은 도시와 농촌, 부모의 경제수준 등에 따라 상당한 격차가 있다[3]. 사교육에 의해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양극화되면 상위권의 아이들은 선행으로 인해 아는 내용을 반복하게 되어 학습이 이뤄지지 않고, 하위권의 학생들은 수업 내용이 어려워 수업이 학습으로 이어지지 않게 된다. 학교에서의 수업이 직접적으로 학습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실제적 학습시간의 부족으로 연결된다. 학교수업, 학원수업, 방과후교실 등의 많은 시간을 학습에 투자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학습이 일어나는 시간은 부족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학습시간이 확보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학습으로 학업성취의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학생들은 진학을 위한 입시위주의 경쟁적 교육환경 속에서 배움의 과정에서의 즐거움보다는 시험이나 성적 등 학습한 결과에 대한 평가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있다[1]. 학업에 대한 흥미보다 성적이나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경험하면 학업에 대해 냉소, 정서적 고갈, 무능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며 학업소진을 경험하기도 한다[4]. 학업소진을 경험하게 되면 학업에 있어 의욕이 감소하고,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학업스트레스는 학업소진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학업 동기를 높여 주거나 학업이나 일의 수행 수준을 향상시켜 충분히 집중하는 학업열의 상태로 이끌 수도 있다. 최근 연구자들은 부정적 개념인 학업소진과 더불어 학업열의라는 긍정적

개념이 함께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5]. 학업열의를 가지게 되면 학업에 대한 호기심이 유발되고, 좀 더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고 싶은 동기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6]. 또한 학습을 즐겁게 느끼고, 집중력을 발휘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7].

자존감이란 자신에 대한 평가로 자기를 가지 있게 여기는 정도를 말한다[8]. 자존감은 자기에 대한 정확한 인지적 평가인 자아개념(self-concept)과 되고 싶은 자신의 이상적 모습인 자기이상(self-ideals)이 통합하면서 발달한다. 자존감은 자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로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9].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아동기에 자존감이 형성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세분화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세분화된 자존감은 다시 통합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전반적인 자존감으로 위계적인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10]. 자존감이 낮으면 실패를 두려워하며, 다른 사람에 대한 의식이 많고[11], 자존감이 낮은 청소년은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부족하여 작은 사건에도 정서적으로 쉽게 압도될 수 있다. 청소년기의 높은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달성하는 경험이 중요하며[12], 주변으로부터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13].

중학교 시기의 학습과정이나 학습수행은 자신개념이나 자기효능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소진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습시간이 매개효과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중학생 시기는 학업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탐색할 때에는 학업적 성공을 위한 심리적 요소들의 관계 뿐 아니라 성별, 학년별 차이를 고려하여 전체적인 발달양상을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학업소진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습시간이 성별, 학년별로 어떻게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중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소진, 학습시간,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학업소진, 학습시간,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학업소진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학습시간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로 설정하고 세부적으로 성별, 학년별로 구분하여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경상남도 소재 3개 시의 6학교의 중학생(550명)과 6개군의 12학교의 중학생(550명)과 중학생 1,1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6~7월 사이에 실시되었다. 총 응답자는 1,084명이었으나 이 중 성실히 설문에 응답한 학생의 설문지 1,045부를 최종적으로 선택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성별분포는 남학생이 574명(54.9%), 여학생은 471명(45.1%)이고, 학년은 1학년이 372명(35.6%), 2학년이 339명(32.4%), 3학년이 334명(32.0%)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s

| | | N | % |
|--------|--------|-----|------|
| Gender | Male | 574 | 54.9 |
| | Female | 471 | 45.1 |
| Grade | 1 | 372 | 35.6 |
| | 2 | 339 | 32.4 |
| | 3 | 334 | 32.0 |

2.2 연구도구

2.2.1 학업소진

학업소진 척도는 이영복(2009), 이자영(2010)의 척도를 사용하였다[14]. 설문문항은 탈진, 무능감, 냉담, 반감, 불안 각 5문항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학업소진의 문항내적합치도는 .916이며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Reliability of academic burnout

| Burnout | Cronbach's α |
|------------|---------------------|
| exhaustion | .763 |
| inefficacy | .851 |
| cynicism | .832 |
| antipathy | .886 |
| anxiety | .876 |
| Total | .916 |

2.2.2 학습시간

학습시간 측정은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중학생의 학습시간은 학원 및 과외시간, 인터넷 강의시간, 방과후교실,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으로 구성되었으며 평일과 주말 시간을 합한 평균을 학습시간으로 정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1=1시간 미만', '2=1시간~2시간미만', '3=2시간~3시간미만', '4=3시간 이상'으로 평정하였다.

2.2.3 자존감

자존감 척도는 Rosenberg(1965)의 Self-Esteem Scale을 이훈진, 원호택(1995)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15]. 자기보고식 척도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문항과 부정적인 평가문항을 포함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정적 평가문항은 역채점하였다. 전체 문항의 총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자존감 문항내 적합치도는 .835이며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Average and reliability of self-esteem

| Self-Esteem | Cronbach's α |
|----------------|---------------------|
| 1,3,4,7,10 | .802 |
| 2*,5*,6*,8*,9* | .762 |
| Total | .835 |

* = Reverse grading question

2.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5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습시간의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Baron과 Kenny[16]의 분석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Sobel's test[17]로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소진, 학습시간, 자존감의 차이 검증

중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소진, 학습시간, 자존감 차이는 Table 4와 같다. 학업소진과 학습시간은 성별, 학년별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존감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고($t=4.498, p<.001$),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존감은 낮아졌다($t=5.599, p<.05$).

3.2 주요 변인 간의 상관분석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아래의 Table 5와 같다. 학습시간과 자존감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학업소진과 학습시간, 학업소진과 자존감의 변인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특히, 학업소진과 자존감은 가장 높은 상관($r=-.323, P<.01$)을 보였고, 다음으로 학습시간과 학업소진($r=-.257, P<.01$), 학습시간과 자존감($r=.165, P<.01$) 순으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 상관분석

결과 모든 상관계수는 -.362~.165의 범위를 보여, 주요 변인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이러한 변인들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자존감이 2.75±.80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학습시간은 2.64±.80, 학업소진은 1.50±.89이었다.

Table 4. Differences in academic burnout, learning time, self-esteem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 Academic Burnout | | M(SD) | t, F |
|------------------|--------|-----------|----------|
| Gender | Male | 1.46(.84) | -1.787 |
| | Female | 1.56(.94) | |
| Grade | 1 | 1.51(.91) | 2.515 |
| | 2 | 1.43(.83) | |
| | 3 | 1.58(.92) | |
| Learning time | | M(SD) | t, F |
| Gender | Male | 2.63(.77) | -0.174 |
| | Female | 2.64(.84) | |
| Grade | 1 | 2.63(.76) | 0.062 |
| | 2 | 2.65(.81) | |
| | 3 | 2.63(.85) | |
| Self-Esteem | | M(SD) | t, F |
| Gender | Male | 2.85(.73) | 4.498*** |
| | Female | 2.62(.87) | |
| Grade | 1 | 2.80(.81) | 5.599* |
| | 2 | 2.81(.80) | |
| | 3 | 2.63(.79) | |

* p<.05, ** p<.01, *** p<.001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s of main variables

| | Academic Burnout | Learning time | Self-Esteem |
|------------------|------------------|---------------|-------------|
| Academic Burnout | 1 | | |
| Learning time | -.257** | 1 | |
| Self-Esteem | -.323** | .165** | 1 |
| Mean | 1.50 | 2.64 | 2.75 |
| SD | 0.89 | 0.80 | 0.80 |

** p<.01

3.3 학업소진과 자존감 사이에서 학습시간의 매개효과

학업소진과 자존감 사이에서 학습시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의 절차에 따라 3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Sobel Test로 검증하였다. 경로모형은 Fig. 1에 제시되었으며, 그 효과는 Table

Table 6. The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s

| IV | DV | B | se | β | R2 | F | Sobel's test |
|------------------|---------------|--------|-------|-----------|-------|------------|--------------|
| Academic Burnout | Learning time | -0.229 | 0.027 | -0.253*** | 0.064 | 71.232*** | -3.075** |
| Academic Burnout | Self-Esteem | -0.276 | 0.027 | -0.304*** | 0.093 | 106.435*** | |
| Academic Burnout | Self-Esteem | -0.253 | 0.027 | -0.279*** | 0.102 | 59.065*** | |
| Learning time | | 0.099 | 0.030 | 0.099** | | | |

* p<.05, ** p<.01, *** p<.001

6과 같다.

1단계에서 학업소진이 학습시간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F=71.232, p<.001), 2단계에서도 학업소진이 자존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F=106.435, p<.001). 3단계에서 학업소진과 학습시간을 동시에 투입 시 이들 두 변수는 자존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는데(F=59.065, p<.001), 3단계 학업소진의 표준화계수(β) 값이 2단계의 -0.304에서 -0.279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학업소진과 자존감 관계에서 학습시간은 부분매개효과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간접효과에 대한 Sobel test결과(Z=-3.075, p<.01)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Fig. 1. The relationship among Academic Burnout, Learning time and Self-Esteem

3.3.1 성별에 따른 학업소진과 자존감 사이에서 학습시간의 매개효과

남학생의 학업소진과 자존감 사이에서 학습시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의 매개효과 검증 가정에 적용시켜 본 결과 가정에 위배되었다. 매개변인인 학습시간이 자존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남학생의 경로모형은 Fig. 2에 제시되었으며, 그 효과는 Table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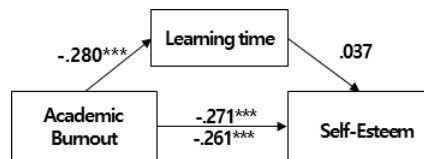


Fig. 2. The relationship among Academic Burnout, Learning time and Self-Esteem in Male

Table 7. The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s by gender

| | IV | DV | B | se | β | R ² | F | Sobel's test |
|--------|---------------------|---------------|--------|-------|-----------|----------------|-----------|--------------|
| Male | Academic Engagement | Learning time | -0.257 | 0.037 | -0.280*** | 0.078 | 48.545*** | -0.868 |
| | Academic Engagement | Self-Esteem | -0.236 | 0.035 | -0.271*** | 0.074 | 45.435*** | |
| | Academic Engagement | Self-Esteem | -0.227 | 0.036 | -0.261*** | 0.075 | 23.104*** | |
| | Learning time | | 0.035 | 0.040 | 0.037 | | | |
| Female | Academic Engagement | Learning time | -0.204 | 0.040 | -0.227*** | 0.052 | 25.583*** | -2.993** |
| | Academic Engagement | Self-Esteem | -0.302 | 0.040 | -0.327*** | 0.107 | 56.028*** | |
| | Academic Engagement | Self-Esteem | -0.267 | 0.041 | -0.289*** | 0.133 | 35.764*** | |
| | Learning time | | 0.170 | 0.046 | 0.165*** | | | |

** p<.01, *** p<.001

여학생의 학업소진과 자존감 사이에서 학습시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의 절차에 따라 3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Sobel Test로 검증하였다. 1단계에서 학업소진이 학습시간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F=25.583, p<.001), 2단계에서도 학업소진이 자존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F=56.028, p<.001). 3단계에서 학습시간과 학업소진을 동시에 투입 시 이들 두 변수는 자존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는데(F=35.764, p<.001), 3단계 학업소진의 표준화계수(β) 값이 2단계의 -.327에서 -.289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학업소진과 자존감 관계에서 학습시간은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간접효과에 대한 Sobel test 결과(Z=2.993, p<.01)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경로모형은 Fig. 3에 제시되었으며, 그 효과는 Table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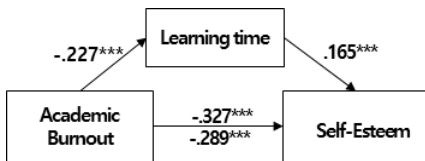


Fig. 3. The relationship among academic burnout, learning time and self-esteem in female

3.3.2 학년에 따른 학업소진과 자존감 사이에서 학습시간의 매개효과

중학교 1학년의 학업소진과 자존감 사이에서 학습시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의 절차에 따라 3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Sobel Test로 검증하였다. 경로모형은 Fig. 4에 제시되었으며, 그 효과는 Table 8와 같다.

1단계에서 학업소진이 학습시간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F=7.526, p<.01), 2단계에서도 학업소진이 자존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F=45.413, p<.001). 3단계에

서 학업소진과 학습시간을 동시에 투입 시 이들 두 변수는 자존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는데(F=25.912, p<.001), 3단계 학업소진의 표준화계수(β) 값이 2단계의 -.331에서 -.314로 변화하였다. 간접효과에 대한 Sobel test 결과(Z=-1.816, p<.05)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Fig. 4. The relationship among academic burnout, learning time and self-esteem in first grade

중학교 2학년의 학업소진과 자존감 사이에서 학습시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의 절차에 따라 3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Sobel Test로 검증하였다. 경로모형은 Fig. 5에 제시되었으며, 그 효과는 Table 8와 같다.

1단계에서 학업소진이 학습시간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F=15.982, p<.001), 2단계에서도 학업소진이 자존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F=27.971, p<.001). 3단계에서 학습소진과 학습시간을 동시에 투입 시 이들 두 변수는 자존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는데(F=19.402, p<.001), 3단계 학업소진의 표준화계수(β) 값이 2단계의 -.277에서 -.241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학업소진과 자존감 관계에서 학습시간은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간접효과에 대한 Sobel test 결과(Z=-2.475, p<.01)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중학교 3학년의 학업소진과 자존감 사이에서 학습시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의 절차에 따라 3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Sobel

Table 8. The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s by grade

| | IV | DV | B | se | β | R ² | F | Sobel's test |
|---|---------------------|---------------|--------|-------|----------|----------------|-----------|--------------|
| 1 | Academic Engagement | Learning time | -0.118 | 0.043 | -.141** | 0.020 | 7.526** | -1.816* |
| | Academic Engagement | Self-Esteem | -0.293 | 0.044 | -.331*** | 0.109 | 45.413*** | |
| | Academic Engagement | Self-Esteem | -0.279 | 0.044 | -.314*** | 0.123 | 25.912*** | |
| | Learning time | | 0.126 | 0.052 | .119* | | | |
| 2 | Academic Engagement | Learning time | -0.208 | 0.052 | -.213*** | 0.045 | 15.982*** | -2.475** |
| | Academic Engagement | Self-Esteem | -0.269 | 0.051 | -.277*** | 0.077 | 27.971*** | |
| | Academic Engagement | Self-Esteem | -0.235 | 0.051 | -.241*** | 0.104 | 19.402*** | |
| | Learning time | | 0.167 | 0.053 | .168** | | | |
| 3 | Academic Engagement | Learning time | -0.371 | 0.047 | -.400*** | 0.160 | 63.319*** | -0.301 |
| | Academic Engagement | Self-Esteem | -0.248 | 0.045 | -.289*** | 0.084 | 30.289*** | |
| | Academic Engagement | Self-Esteem | -0.242 | 0.049 | -.282*** | 0.084 | 15.149*** | |
| | Learning time | | 0.016 | 0.053 | .017 | | | |

** p<.01, *** p<.001

Test로 검증하였다. 경로모형은 Fig. 6에 제시되었으며, 그 효과는 Table 8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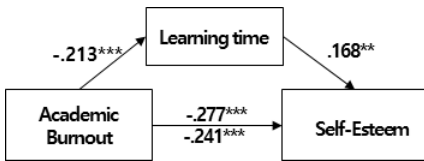


Fig. 5. The relationship among academic burnout, learning time and self-esteem in the second grade

1단계에서 학업소진이 학습시간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F=63.319, p<.001), 2단계에서도 학업소진이 자존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F=30.289, p<.001). 3단계에서 학습소진과 학습시간을 동시에 투입 시 이들 두 변수는 자존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는데(F=15.149, p<.001), 3단계 학업소진의 표준화계수(β) 값이 2단계의 -.289에서 -.282로 변화하였으나 간접효과에 대한 Sobel test 결과(Z=-.301)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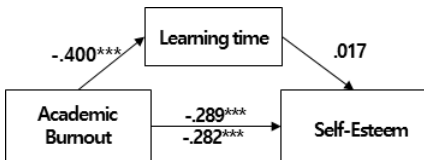


Fig. 6. The relationship among academic burnout, learning time and self-esteem in third-grade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학생의 학업소진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습시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변인들 간의 관계

가 중학생의 성별, 학년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소진, 학습시간, 자존감의 중학생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업소진과 학습시간은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존감은 성별, 학년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성별, 학년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선행연구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18-20].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성별, 학년별 종합적인 차이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에서 측정변수 간에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따라서 중학생의 학업소진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 학년별 차이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둘째, 학업소진, 학습시간, 자존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업소진, 학습시간과 자존감은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학습시간과 자존감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학업소진, 학습시간, 자존감이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업소진, 학습시간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을 의미한다.

셋째, 학업소진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학업소진이 낮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소진이 자존감에 부적효과를 나타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업소진이 높으면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학업소진이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학습시간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성별, 학년별 구별하지 않은 전체집단에서는 학업소진이 자존감에 이르는 직접 경로와 학습시간을 거쳐 자존감에 이르는 부분 매개모형에서 학습시간의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업소진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습시간

의 매개효과는 성별, 학년별로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전체집단에서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구체적으로 성별, 학년별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으나 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매개변인인 학습시간이 자존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여학생의 경우는 학습시간이 자존감에 유의미한 통계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여학생만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년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중학교 1, 2학년은 학습시간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으나, 중학교 3학년의 경우 학업시간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중학교 1학년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하여 중간, 기말고사가 없는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는 학년이라 시험에 대한 압박은 2, 3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느끼는 학년이다. 중학교 2학년은 처음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내신성적을 받게 되는 학년이라 중학교 1학년 보다는 시험과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고, 고등학교 입시를 앞둔 3학년은 1, 2학년에 비해 시험에 대한 압박과 늘어난 학습량으로 1, 2학년에 비해 절대적인 학습시간이 늘어나는 학년이다. 본격적으로 입시경쟁에 들어가기 전인 중학교 1, 2학년생은 본인의 학습시간이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학교 3학년 학생은 본인의 학습시간이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중학생의 학업소진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습시간의 매개효과는 성별, 학년별 집단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미를 가진다. 급격한 성장기인 중학생 시기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별에 따른 접근 뿐 아니라 학년별로도 학습소진이 학습시간과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한 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대상은 일부지역 중학생에 한정되어 전국의 학생들을 대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학업소진과 자존감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보이는 변수가 다수 있을 것이다. 차후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다른 매개변수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M. N. Kwon., J. S. Lee. (2020). A multi-group analysis of smartphone dependency based on a structural relations analysis and gender in terms of negative parenting behaviors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grit, and academic enthusiasm.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7(2), 29-44.
- [2] M. J. Kim, D. G. Lee. (2018). Influence of Academic Stress on Aggression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15(1), 69-89.
- [3] K. S. Eun .(2019). Study Time for Middle School Students and Parental Educational Attainment in Korea : Findings from Korean Time Use Survey 2014.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42(1), 33-58.
- [4] H. I. Jo, H. A. Lee(2010). The Mediating Effects of Achievement Goals on the Relationship among Perfectionism, Academic Burnout and Academic Engage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12), 131-154.
- [5] A. R. Yoon., N. U. Jeong. (2011). A Review of counselor's burnout,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3(2), 231-256.
- [6] S. J. Lee (2011). The Effect of Flow on Learning and Self-efficacy on College Adapt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Undergraduate Stud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5(2), 235-253.
- [7] E. K. Kwon. (2020). A Study of Academic Engagement and Academic Burnout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11), 123-127.
- [8] J. Y. Lee. (2013). Testing the Grade Differences in Academic Engagement Using Latent Mean Analysi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2), 1-21.
- [9] K. E. Bae., Y. H. Kang.(2007). Sexual Attitudes, Sexual Behaviors and Self-esteem of Male High School Students in Busan. *Tha Academic Society of Parent-Child Health*, 10(1), 36-47.
- [10] Harter, Stephen P. (1990). Search Term Combinations and Retrieval Overlap: A Proposed Methodology and Case Study.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41(2), 132- 147.
- [11] S. R. Kwak., M. O. Song., Y. H. Kim.(2021). Effects of Parents' Self-Esteem and Happiness on the Self-Esteem and Happines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The Health Care and Life Science*, 9(1), 11-25.

- [12] J. H. Lee., S. K. Seo. (2020). A Study on Differences of Attribution Style and Negative Emotion according to Type of Self-esteem in Negative Situation.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sychotherapy*, 12(2), 53-67.
- [13] S. H. Park. (2019). Stability of Self Esteem and Its Predictors for Primary School Students :A Short-Term Longitudinal Approach.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32(3), 271-296.
- [14] S. M. Lee, J.Y. Lee.(2009). Development of Korean Academic Burnout Scale.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15(3), 59-78.
- [15] H. J. Lee, H. T. Won. (1995). Self-Concepts and Paranoid Tendency. *Psychological Science*, 4(2), 15-29.
- [16] R. M. Baron &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3.
- [17] M. E. Sobel. (1982), *Asymptotic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s*. In S. Leinhardt(ed), *Sociological Methodology*. San Francisco: Jossey-Bass.
- [18] H. C. Choi (2022). Reciprocal Relationships between and Grade Latent Mean Differences of Happiness and Self-Esteem in 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49(2), 5-36
- [19] X. Huang, T. S. Shin. (2021).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Self-Esteem and the Academic Helplessn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A Multiple Group Analysis by Gender.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42(1), 163-198.
- [20] H. J. Lim, H. C. Choi, M. H. Hwang.(2017). The Longitudinal Reciprocal Predictability of Peer Attachment,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among Early Adolescence: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The Journal of Korea elementary education*, 28(3), 151-172.

권은경(Kwon Eun-Kyoung)

[중신회원]



- 2013년 2월 : 경남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18년 3월~현재 :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교수

• 관심분야 : 교육심리, 상담

• E-Mail : cantatas@daum.net